

# 순천시 스포츠클럽 지원으로 생활체육 활성화

공공스포츠클럽 시민 7만명 이용  
축구·탁구·배드민턴 등 강습  
학교연계형, 전문선수 육성 효과



순천시 공공스포츠클럽 활성화로 클럽팀이 제60회 청룡기 전국중학교 축구대회 유스컵 우승을 안았다.

순천시가 연간 7만여 명이 누리는 '종합형 스포츠클럽'과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 2개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생활체육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순천시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수준의 생활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스포츠클럽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순천 스포츠클럽 지원에 힘쓰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스포츠클럽은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해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이다. 순천시에는 3개의 스포츠클럽(학교연계형 2·종합형 1)이 운영되고 있다.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은 대한체육회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순천형 씨름스포츠클럽과 순천유도스포츠클럽이 있다.

씨름과 유도 종목 중심으로 수준별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학교운동부와 연계해 운영하면서 전문선수 육성 효과를 보고 있다.

순천공공스포츠클럽은 종합형 스포츠클럽이다. 이 스포츠클럽은 순천시 유일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스포츠클럽이다. 팔마국민체육센터에서 축

구, 탁구, 배드민턴, 라인댄스 등 7가지 강습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 7만명의 시민이 참여해 체육활동을 즐기고 있다. 순천공공스포츠클럽은 선수반 운영을 통해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 연계에 힘쓰고 있다. 지난해에는 선수반이 다양한 대회에 참가해 전국체전 태권종목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획득하고 60회 청룡기 전국중학교 축구대회 유스컵에서 우승했다. 순천시는 스포츠클럽을 문화누리카드와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점으로 등록하는 등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친근감을 높일 예정이다. 또 스포츠클럽 운영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순천공공스포츠클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순천 스포츠클럽 누리집(sportsclub.sports.or.kr/jeonnam-suncheon/index.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스포츠클럽이 학교체육과 생활체육, 엘리트체육을 연결하는 선순환의 구심점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 '광양시 생애복지플랫폼' 박차 복지정책 지속 개발 연내 구축

광양시가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마련하는 '광양시 생애복지플랫폼' 구축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광양시는 민선 8기 7대 추진전략 중 하나인 '광양시 생애복지플랫폼'을 연내 완성할 계획이다. 지난해 7월 광양시는 조직개편을 통해 복지부서 사령탑인 '감동시대추진단'을 신설했다. 이곳은 새로운 복지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복지정책을 지속해서 개발하고 있다. 그동안 ▲출산장려금 지급제도 개선(금액 증가·월별 지급) ▲고등학생 인터넷 강의 수강료 지원 ▲광양형 24시 돌봄어린이집 운영 ▲어린이 중증환자 관의 진료 교통비 지원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신혼부부 국내의 여행경비 지원 ▲청년참여 포인트제 운영 등 복지정책을 개발해 실행을 앞두고 있다. 신규 복지정책들은 시민 의견수렴을 위해 광양시청 누리집 '시민참여-신규정책' 사전공개란에 차례대로 공개되고 있다. 시민 의견수렴을 마친 신규 정책들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책, 조례안 마련, 예산편성 등 행정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돼 실행하게 된다. 생애복지정책 안내서를 전자책 방식으로 개발하는 등 각종 복지정책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도 진행되고 있다. 생애복지정책 안내서는 이달 중 배포 예정으로,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생애복지 정책뿐만 아니라 취업·창업, 소상공인·영농인, 장애인,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다자녀 가정, 보훈대상자 등 분야별 복지정책을 모두 담는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

# 고흥군 교육발전기금 기탁 줄이어...285억 적립

지난해 군민·향우 등 725명 참여  
고흥군에서 2008년부터 각종 기탁금으로 조성된 교육발전기금이 285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사단법인 고흥군교육발전위원회(이사장 공영민 군수)는 고흥의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각계각층의 교육발전기금 기탁이 지난 연말과 새해초로 이어지면서 적립 금액도 늘고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군민, 향우, 군청, 각급 기관단체 임직원 등 725명의 정기 회원이 매월 십시일반 모은 기금은 8200여만원이다. 또 수시 기탁으로 조성된 기금은 4억7300여만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NH농협은행 고흥군지부, 고흥군수

산협동조합은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역대 기탁금을 냈다. 2024년이 시작되면서 풍양초등학교 학생들이 연말 바자회 수입 전액을 교육발전기금으로 기부해 따뜻한 기부문화 조성에 열기를 더했다. 모인 기금은 고흥교육자치협력지구 운영, 우수 명문고 육성, 명문 특성화고 취업 대비 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청과 각종 학교 지원사업에 쓰인다. 또 중고생 아카데미 운영, 영아·한국사·수학 경시대회 및 각종 장학금 지원 등 위원회 자체 사업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고흥군교육발전위원회 이사장인 공영민 군수는 "고흥군 미래인재 양성과 교육 발전을 위해 교육발전기금을 기탁 해준 모든 분께 감사드

린다"며 "지역 우수한 인재들이 성장해 고흥의 발전을 견인하고, 사회에 환원하는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분의 동참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고흥=주창희 기자 gjju@kwangju.co.kr



고흥군청 팔영산홀에서 교육 발전기금 기탁식이 열리고 있다. <고흥군 제공>

# 곡성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 1순위 후보지 금반리 선정

곡성지역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입지 후보지로 금반리 마을이 선정됐다. 곡성군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후보지를 공모한 결과 삼기면 금반리 마을을 1순위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곡성군은 16일부터 20일동안 입지선정 결과와 조사 과정을 공고하고 환경과에 관련 자료를 비치해 주민들이 직접 결과를 열람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이어 금반리 마을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한 후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생활폐기물 설치지역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입지로 확정되면 생태공원과 쉼터, 폐열을 활용한 공공목욕탕 등 주민 편의 시설을 설치하고 공사비의 최대 20% 범위 내에서 주민 지원 기금을 조성한다. 곡성군 관계자는 "광역위생매립장 사용 협약 종료와 2030년부터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입 금지 정책에 따라 자체적으로 생활폐기물을 처리해야 한다"며 "친환경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곡성=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설 연휴 여수 찾은 관광객 16만명... 지난해보다 20% 증가

2월 9~11일 투숙률은 60% 넘어  
오동도·해양공원 순 방문객 많아  
설 연휴 여수를 찾은 관광객이 전년 명절보다 '두 자릿수' 증가율을 나타내며 국내 대표 명절 휴양지로 자리 잡았다. 15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9~11일 나흘간 여수를 찾은 관광객은 16만688명으로, 지난해 설(4일) 관광객 13만3784명보다 20.1%(2만6904명) 증가했다. 설 연휴 기간 하루 평균 관광객은 3만3446명

서 4만172명으로, 1년 새 7000명 가까이 늘었다. 일별 관광객을 살펴보니 설 다음 날인 11일(일요일) 5만명을 넘어며 최다를 기록했다. 설 당일(10일)에도 4만6755명의 관광객이 여수를 찾았다. 여수시가 주요 숙박업소 18곳을 대상으로 투숙률을 조사해보니 나흘간 평균 투숙률은 61.2%로 집계됐다. 9일부터 11일까지는 매일 투숙률이 60%대를 나타냈다. 여수시가 관광지식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여수지역 주요 관광지점 28곳의 방문객을 집계해보니 지난 주말(10-11일)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은 여

수 명소는 '오동도' (1만9957명)였다. 이는 지난 주말에 비해 180%(7103명 ↑) 된 수치다. 오동도는 최근 동백꽃이 꽃망울을 터뜨리면서 상춘객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오동도에 이어 엑스포해양공원(1만2783명), 향일암(1만2617명), 둘산공원 케이볼가(1만1800명) 등 순으로 방문객이 많았다. 주말 동안 여수 명소 28곳을 찾은 관광객은 9만7506명으로, 전주보다 88.6%(4만5819명) 늘었다. 이 밖에도 돌레길과 야영장을 갖춘 남도와 거문도, 헬리자파코 루지, 예술랜드 등이 가족 단위 관

객들로 북적였다. 여수시는 설 연휴 해외여행 수요가 늘었음에도 포근한 날씨와 풍부한 숙박시설을 갖춘 여수에서 '설강스' (설+바캉스)를 만끽하려는 국내 여행객이 많았다고 풀이했다. 여수시는 연휴 관광객 증가에 대비해 각종 관광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하고, 연휴 기간 종합상황실을 확대 운영했다. 주요 관광지에는 안내소와 교통대책반을 가동하는 등 시민과 관광객 편의 제공에 힘썼다. 강수는 여수시 관광과 주무관은 "이번 설 명절 관광객 16만명 돌파를 기반으로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봄을 맞아 다양한 관광 상품 개발과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한 여수 관광 활성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복스